

<초록>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실태와 대외인식

제출자 : 김 동 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사면의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했던 제주인들은 뜻하지 않은 바람을 만나, 다른 지역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인들은 고기잡이, 미역 채취, 제주도 연안 항로를 이용한 물품운반 등 바다 생활을 하거나, 감귤이나 말 등의 공물 운반, 과거 응시나 장사를 위해 육지로 가다가 대부분 표류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제주인의 표류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제주계록』, 『표인영래등록』, 제주도 관련 각종 읍지류 등의 국내자료와 『漂民被仰上』, 『公義被仰上』 등의 일본측 자료 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제주인의 표류실태를 분석하였다. 즉, 출항목적, 표류사유, 표착지, 표류인원, 표착지 생활, 읍호환칭, 생환, 신분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표류민으로서 제주인들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주인이 중국·일본·유구국·안남국 등에 표류하였다가 돌아오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이었다. 한 달 이내에 송환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몇 년만에야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호적을 작성하면서 표류자는 ‘표류’라 기록하여, 살아 돌아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몇 년 계속 소식이 없는 경우에 가족들은 장례를 치루고 제사를 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제삿날에 돌아오는 경우는 마치 죽은 신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의심할 정도였다.

조선후기 제주인들은 표류를 당하였을 때, 제주인임을 속이고 다른 지역 출신임을 내세우는 관행이 있었다. 즉, 이를 읍호환칭(邑號換稱)이라 말한다. 제주인들이 자신들의 출신지를 숨기고, 출신지를 바꾸어 부른 대상 지역으로는 강진·영암·해남·완도·광주·나주·영광·무안·고달도·진도·영산포 등 대부분 전라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선박과 항해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 표류민을 통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 획득은 국가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용하였다. 공식적인 국가의 외교 사절단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이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표류를 통한 것이었다. 제주인의 빈번한 표류는 김비의처럼 국가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표류를 통한 제주인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경험은 제주인들로 하여금, 중국, 일본, 오키나와, 안남 등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 정보를 통해 표착지에서의 체류 생활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인들의 중국, 일본, 오키나와, 안남 등에 대한 대외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